

의대 교수 사직행렬... 초읽기 들어간 '의료대란'

전남대 과반·조선대 42% 사직서 이번주 회의 열고 진료축소 검토 전공의 이어 교수까지... 큰 파장 응급수술 등 환자들 피해 불가피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지난주 광주지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모으며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공의 대거 이탈로 공중보건의·군외관까지 투입됐지만 진료축소까지 결의한 교수들의 행보에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31일 전남대·조선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전남대는 과반 이상, 조선대는 161명의 소속 교수 중 68명(42%)이 사직서를 받았다.

전남대의 경우 본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소속 교수들의 사직서까지 접수하고 있지만 일부 국외 연수자, 연구 전담 인력을 총원에 포함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모두 교수를 총원에 포함한 4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넘는 교수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제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일, 2일에



임현택(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스

교수 회의를 열어 그동안 취합한 사직서를 대학이나 병원 측에 일괄 또는 개별 제출할지, 언제 제출할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진료시간 축소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주52시간 근무방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필수 의료를 유지하면서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진 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의 보루"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를 최우

선으로 염두에 뒀다.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유지해 주기 바란다"는 호소문을 교수 개개인에 발송한 바 있다.

교수 등 전문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지역 내 응급·중증환자조차 2차 병원에서 소화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중보건의·군외관을 2차 투입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1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파견·배치된 군외관·공보의가 총 11명이다. 조선대병원도 지난달 25일 처음 파견 인력을 지원받았다. 실무 교육을 거쳐 이날부터 일선 진료과에 배치된다.

그러나 전공의 대거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병원 측 전언이다. 환자 생명이 오가는 중요한 응급수술에서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대다수가 이탈한 데다, 기존 마취과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도 심각하다.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도에서는 지난 1차 공중보건의의 차출 23명에 이어 이번에도 22명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됐다. 전체 도내 공중보건의의 17%에 해당하는 수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송민섭·김혜인 기자

직원 성추행 의혹 전 신안군체육회장 검찰 송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산 전 신안군 체육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전 신안군 체육회장인 김모(60)씨를 송치했다.

김씨의 신고피해는 지난해 9월 전남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 6여 명으로, 이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9월 2~3개월에 걸쳐 체육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했다. 피해를 당한 생활체육지도사들은 최근 술자리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피해자들에 '살이 찐 것 같다'며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거나, 귓볼과 손 등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신안군체육회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전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한지 6개월 만으로 체육회 측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유는 개인 정보여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본사인사

△ 정태영 완도주재 기자

<4월1일자>

△ 완도주재 부장 최경철 의원면직

<3월 31일자>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실 5·18조사위 보고서 보완·폐기하라"

"문제점 많아 신뢰할 수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 조사보고서가 부실하고 왜곡이 심하다며 보완·폐기를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조사위가 낸 개별 조사보고서는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 보고서 간 모순이나 부정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라고 31일 밝혔다.

민변은 "진상조사위는 지난 4년간 조사 기획과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하고 왜곡된 증거들

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공청회와 정문회, 특검 등 5·18특별법이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 수집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는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면서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표 명령, 암매장 등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한다"면서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개별보고서의 왜곡 가능성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 공개하는 방안과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도 주문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 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조사위는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